전북 교육 소식

탈권위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강화돼야"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육지원청 역할인식 연구 보고서

교육지원청이 권위주의를 벗었지만 학교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을석)는 최근 학교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교직원 9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청이 종래의 관료주의적인 모습을 벗고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확대되고 각종 연수를 지원하는 등 학교 지원 노력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교육지원청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사후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사전 협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 방지 역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교장, 교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내 직종 간에 발생하는 갈등 중재 및 조정기능도 주문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 내 각종 기관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는 특히 정책·사업 이행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교육지원청 평가방법을 학교 지원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부문과 행정부문으로 이원화된 조직 구조가 단위 학교를 지원하는데 있어 적합한 조직 구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조무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교육지원청은 지역 밀착성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학교, 전년대비 '청렴도 상승'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

전라북도교육청이 공사립학교 행정실장 이상 교감, 교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체 청렴도평가를 한 결과,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장 등 총2,562명에 대한 개인청렴도평가 결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고위공직자그룹은 전년도보다 0.9점 상승한 98.1점, 각급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그룹은 전년보다 1.7점 상승한 98.6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 청렴도는 내부직원과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들이 이메일 설문조사 응답 형태로 평가한 결과다. 다만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직자에 대한 외부 평가단의 점수는 전년보다 1.0점 하락한 97.3점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청렴도를 보면 공립 행정실장이 9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교육청 팀장과 사립학교 행정실장그룹이 98.7점으로 뒤를 이었다. 도교육청 및 기관 그룹에서 도교육청 국과장, 교육장그룹은 97.7점, 교육지원청 과장그룹도 97.8점으로 다른 그룹에 대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각급 학교의 경우에도 공사립 유치원장(97.5점), 사립학교 교감그룹(98.0점)이 다른 그룹 대비 낮게 나왔다.

한편 지난해 하위권으로 평가됐던 사립학교 교장(98.4점), 교감(98.0점), 행정실장(98.7점)의 청렴도평가 결과는 올해 상승했으며 지난해 공립초등학교 교장그룹(98.4점)보다 낮았던 공립중고등학교 교장그룹(98.5점)도 올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개인청렴도평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중앙경영연구소에 의뢰, 지난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 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렴정책 일환으로 2011년부터 개인청렴도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전북대, 디지털 전자자료 적극 알리다

박람회 25일 오전 10~17시까지 도서관 로비서 개최
25개 부스 설치, 이벤트, 학술정보 퀴즈대회 등 다채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서관 자료도 디지털화된 전자자료로 급변했다. 전북대학교 도서관도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저널, 학술DB, 전자책, 사이버 학습 컨텐츠 등 9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전자 자료를 구입하여 대학 구성원에 제공해 오고 있다.

전북대 도서관이 이러한 전자 자료들 알리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4회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CBNU e-Library! 디지털 세상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박람회에서는 사이버 학습, 국내 학술DB, 해외 학술DB, 한국학 학술DB, 도서정보 제공DB 등 전자자료의 주제별, 형태별 특징에 따라 총 25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는 전자자료 부스 투어를 통한 정보 탐험을 비롯해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운의 룰렛 돌리기 이벤트를 통한 소통 한마당, 온라인 학술정보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6개 이상 부스 투어 및 3개 이상의 전자자료 어플을 모바일 기기에 모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다채로운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오전 10시부터 중앙도서관 큰사람세미나실에서는 이화여대 김 순 박사가 '효과적인 국제학술지 투고 전략'을, 그리고 아르고넷 박민순 이사가 'SCI급 저널을 만들기 위한 Process'을 주제로 각각 특강도 펼칠 예정이다.

박승제 도서관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자원을 PC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청, 고교생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 개강

전북도교육청의 고등학생 대상 '하이클래스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이 21일 개강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고1, 2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 독서와 강의를 통한 철학적 사고능력과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17주(51시간) 동안 매주 일요일에 3시간씩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주 한일고(8학급), 군산 전북외국어고(4학급), 익산 전북제일고(2학급)를 권역별 거점학교로 지정했으며, 인문반과 자연반으로 나눠 14학급 총 260명의 학생이 참여해 독서 후 토론 및 강사특강, 주제 탐사 보고서 작성 등을 이수하게 된다. 강사는 학생에게 현직 교사의 참여를 늘려 양질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분야는 교수, 작가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다. 수업은 1일 3교시 무학년 통합 인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독서·토론·강의 후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수 정예 인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철학적 성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사범학교 9회 동문 졸업 6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전주사범학교 9회 동문(회장 송병용)은 5월 19일 졸업 6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모교를 방문하여 학교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사교육센터, 체육센터, 테니스장, 기숙사 등 변화된 학교 모습을 두루 살펴보며 재학시절을 떠올렸다. 또한, 최경희 총장 직무대리 등 교직원들과 캠퍼스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모교에서의 추억을 쌓았다. 9회 동문은 1957년 모교를 졸업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초등교육을 선도하였으며, 퇴직 후 등산, 당구 등의 동호회를 구성하는 등 60년의 세월에도 변함없이 끈끈한 친목을 자랑하는 기수이다.

특히, 송병용 회장은 개별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전기금 일백만원을 기탁했다.

최경희 총장 직무대리는 "평소 모교와 후배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주사범학교 9회 동문님들께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수학여행을 선물해준 선생님

공음초 이용현 교사
다리 다친 제자 업고 여행

고창 공음초 이용현 선생님이 다리를 다친 제자를 업고 수학여행을 다녀와 화제다.

공음초 이용현 선생님은 자신의 반 학생이 다리를 다쳐 수학 여행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님이 허락만 한다면 같이 가는게 어떻냐고 제안했고 같은 반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비까지 내리는 날씨였지만 이용현 교사는 50kg에 육박하는 아이를 업고 이 학생이 수학여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일정 내내 함께 했다.

평소 이용현 교사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형, 오빠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학생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마음으로 생활해 와 학생들도 늘 존경하는 마음과 친근함을 같이 가지고 생활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농촌 오지에서 묵묵히 아이들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의 진가가 조금이나마 빛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주변의 이야기다.

이러한 사연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부와 KBS가 주관한 '내 마음의 선생님 캠페인' 사진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외부에 알려졌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강성관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공모전에 응모하였고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

강성관 학생은 "발목뼈에 금이 가 깁스를 한 상황에서 비까지 온 수학여행 길에 나와 내 가방을 선생님께서 내내 업고 다니셨다. 그런 선생님이 너무나 고마웠고 죄송했다"라며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